

저자 (Authors)	윤선태 Yoon, Seon-tae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38) , 2016.12, 387-421(35 pages) SILLASAHAKPO (38) , 2016.12, 387-421(35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5332
APA Style	윤선태 (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38), 387-4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윤선태*

I. 머리말	III.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쟁점
II.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환경과 출토현황	IV. 백제목간의 연구 성과와 쟁점 V.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의 고대목간은 전체 출토점수가 647점에 달해, 현재 그 자료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발굴된 한국고대목간의 대부분은 신라목간이다. 경주의 안압지, 월성해자, 황남동 376번지유적과 같은 신라의 도성유적을 비롯해, 하남 이성산성, 함안 성산산성 등 지방의 관아유적에서도 목간이 발굴되었다. 신라목간은 백제목간에 비해 출토점수도 많고, 목간출토 유적이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라목간문화의 변천과정이나, 목간제작이나 서사방식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월성해자 출토 목간과 안압지 출토 목간은 그 출토 유적의 시기적 선후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신라 문자문화의 계기적 변화와 발달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유물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제목간은 부여 官北里 유적에서 1983년에 최초로 발굴되었고, 1995년 부여 宮南池 유적에서 ‘西部後巷’이 墨書된 1호목간이 발굴되면서 5부5항의 실재성이 증명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 목간 자료의 가치가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여의 여러 유적에서 연이어 백제목간이 출토되면서 목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羅州 伏岩里 유적 등 지방관아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목간이 여러 점 발굴되어 이제는 백제의 都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城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의 존재양태와 인민에 대한 지배방식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백제목간은 신라목간에 비해 그 출토점수는 비록 적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불모지였던 백제의 戶籍, 量田, 度量衡, 地方行政體系, 문서행정, 都城 내외의 공간구조와 景觀, 術數學, 심지어 제사의례의 복원까지도, 목간자료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목간, 신라, 백제, 문서행정, 하찰

I. 머리말

한국의 古代史料는 當代의 1차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후대에 정리된 문헌자료도 1145년에 간행된 《三國史記》가 가장 빠르다. 고대사의 복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고자료의 발굴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그 출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木簡’ 자료의 위상은 남다른 면이 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목재를 다듬어 만든 書寫材料를 말한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종이가 발명되었지만, 나무의 경제성으로 인해 목간은 書寫材料로써 오랫동안 종이와 並用되었다. 전적이나 장부의 제작, 문서의 발취를 비롯해, 공식 문서를 만들기 위한 정리과정에서도 각종 메모용, 연습용으로 목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더욱이 나무의 내구성으로 인해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는 늦은 시기까지도 목간이 세금과 물품의 꼬리표로 널리 제작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¹⁾

1) 최근 마도 등 서해안에 침몰된 고려 조운선에 대한 해양발굴조사를 통해, 당시까지도 물품꼬리표로 목간, 죽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임경희·최연식,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목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안압지에서 1975년 처음으로 한국고대목간이 발굴된 이래,²⁾ 각지의 유적에서 목간이 출토되어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목간자료의 발굴이 보고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적외선촬영기법이 도입되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목간의 목서를 읽어낼 수 있게 되면서 목간의 자료적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木材遺物이 잘 보존된 ‘低濕地’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현재 목간의 출토점수는 600점을 상회하고 있다. 이제 목간은 수량 면에서도 한국고대사 자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목간자료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학계에 희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제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목간은 고고자료라는 점에서 우선 발굴측에서 목간의 학술정보를 최대한 관리 정리하는 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고대목간의 발굴 이후 고대사 연구에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³⁾ 앞으

과 문자》 5, 2010).

2) 李基東, <雁鴨池에서出土된新羅木簡에 대하여> 《慶北史學》 1, 1979 : 《新羅骨品制社會와花郎徒》, 일조각, 1984.

3) 이미 여러 차례 한국 고대목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정리된 바 있다. 아래의 글을 참조바람.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 《木簡研究》 19, 1997 ; 李成市, <韓國木簡研究의現況과咸安城山山城出土의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 윤선태, <한국고대목간의출토현황과전망> 《한국의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 이기동, <韓國古代木簡의發見による新羅·百濟史研究의新たな進展>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이용현, <韓國における木簡研究の現狀>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주보돈, <한국의목간연구의현황과전망> 《목간과 문자》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2008 ; 김창석, <羅州伏岩里출토木簡연구의쟁점과과제> 《百濟文化》 45, 2011 ; 전덕재, <한국의고대목간과연

로의 과제와 방향도 전망해보려고 한다.

II.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환경과 출토현황

현재 목간 자료는 그 출토 점수는 물론 연구 성과의 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성장에는 무엇보다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舊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공이 매우 크다. 同연구소에서는 1998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신라목간(이하 ‘함안목간’으로 약칭) 27점을 일반 공개하고, 1999년 11월 한국고대사학회와 함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내용과 성격’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중국과 일본의 목간연구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함안목간의 자료적 중요성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학, 고고학, 보존과학 등과의 학제간 연구, 그리고 목간연구에 있어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조체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이후 목간연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더욱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4년에 당시까지 출토된 한국 고대목간 자료를 집대성하여, 각 목간의 칼라사진과 적외선사진을 정리하여, 《한국의 고대목간》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PDF파일로도 일반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목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목간 연구는 사실 이 책의 간행으로 인해

구동향> 《목간과 문자》 9, 2011 ; 홍승우, <부여 지역 출토 백제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이용현, <나주 북암리 목간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이재환, <한국 고대 ‘주술목간’의 연구 동향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윤선태,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 49, 2013.

시작되었다. 이어 동연구소는 일본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소와 함께 2007년《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이라는 공동연구 자료집을 간행하여, 목간의 보존환경, 형태, 제작방법, 목서판독 등의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후 목간 자료의 정리, 관련 도록, 보고서 등의 발간에 기초하여 목간연구자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마침내 2007년 1월에 ‘韓國木簡學會’가 창립되었다. 2008년에는 同학회의 기관지《木簡과 文字》가 창간되어, 현재 제16호(2016년 6월호, 年 2회 발간)까지 간행되었다. 同학회는 新出 목간자료를 신속히 학계에 소개하고, 목간자료에 대한 연구 발표를 활성화하여 목간자료를 통한 한국고대사의 복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뿐 아니라, 고고학, 국어학, 서예학 등 목간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학제간 연구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中國簡牘學會나 日本木簡學會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학문적 연대를 실현해가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노력 속에서 현재 한국 고대목간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 국내외의 박사학위논문만도 3편이나 제출되었고,⁴⁾ 관련 전문학술서 등이 한국과 일본에서 속속 간행되고 있다.⁵⁾

4) 이용현, 《한국고대목간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橋本繁, 《出土木簡よりみた古代朝鮮の文字と社會》, 早稻田大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경섭, 《신라 중고기 목간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이용현,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2006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2007 ; 朝鮮文化研究所編,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표1〉 한국 고대목간의 출토현황(2016년 현재)

遺跡名	發掘年度	木簡年代	出土點數	備考
慶州 雁鴨池	1975	統一新羅	61	附札木簡
慶州 月城塚字	1984~1985	新羅 6~7세기	25	多面木簡
慶州 皇南洞 376番地	1994	統一新羅	3	文書木簡
慶州 博物館敷地	1998	統一新羅	2	呪術木簡
慶州 傳仁容寺址	2002	統一新羅	1	呪術木簡
慶州 博物館 남측부지	2011~2012	統一新羅	3	
河南 二聖山城	1990~2000	新羅 6~7세기	13	前白木簡
咸安 城山山城	1992~2015	新羅 6세기 중반	310(?)	荷札
金海 鳳凰洞	2000	統一新羅	1	《論語》多面木簡
扶餘 東南里	2005	統一新羅(?)	1	
益山 彌勒寺址	1980	統一新羅	2	
昌寧 火旺山城	2003~2005	統一新羅(?)	7	呪術木簡
仁川 桂陽山城	2005	新羅(?)	2	《論語》多面木簡
扶餘 官北里	1983~2003	百濟 7세기	10	南朝尺
扶餘 宮南池	1995~2001	百濟 7세기	3	戶籍拔萃木簡
扶餘 陵山里寺址	2000~2002	百濟 6세기	153(?)	削屑 125점
扶餘 雙北里 102	1998	百濟 7세기	2	唐尺
扶餘 雙北里 현내들	2007	百濟	9	
扶餘 雙北리 280-5	2008	百濟 7세기	3	出舉用木簡·題籤軸
扶餘 雙北리 119센터	2009~2010	百濟 7세기	4	
扶餘 雙北리 뒷개	2010	百濟	2	
扶餘 雙北리 328-2	2011	百濟	3	九九段木簡
扶餘 雙北리 184-11	2012	百濟 7세기	2	
扶餘 雙北리 201-4	2012	百濟	2	
扶餘 舊衙里 319	2010	百濟 6~7세기	9	
錦山 栢嶺山城	2004	百濟	1	
羅州 伏岩里	2006~2008	百濟 7세기	13	戶籍拔萃木簡
전체 출토 점수 (신라 431점, 백제 216점)			647	

<표 1>은 한국의 고대목간을 유적지별로 출토점수를 정리해본 것이다.⁶⁾ 전체 목간 출토점수를 647점으로 집계하였지만, 발굴보고서

6)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낙랑시대의 簡牘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고대사의 이해에 있어 이들 자료의 발굴도 그 의의가 크지만, 이 글에서는 우리가 직접 발굴한 신라, 백제의 목간 자료들

별로 목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전체 출토 점수의 합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이하 ‘능산리목간’으로 약칭)에는 목간의 목서를 깎아낸 削屑, 즉 목간 부스러기 125점을 포함시켰다. 정식 보고서에는 이를 목간으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삭설도 각 부스러기를 별로 목간 1점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함안목간의 경우, 17차 조사(2015년 12월)까지 전체 310점이 발굴된 것으로 최종 보고되었다.⁷⁾ 그러나 이 통계수치에는 중복된 것도 있고, 목서가 없는 목간 형태의 목재 유물, 예를 들어 발굴측에서 ‘題籤軸’으로 파악한 목서 없는 목제품들까지도 목간으로 집계되어 있다.

현재 발굴된 한국고대목간의 대부분은 신라목간이다. 경주의 안압지, 월성해자, 황남동 376번지유적과 같은 신라의 도성유적을 비롯해, 하남 이성산성, 함안 성산산성 등 지방의 관아유적에서도 목간이 발굴되었다. 신라목간은 백제목간에 비해 출토점수도 많고, 목간출토 유적이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라 목간문화의 변천과정이나, 목간제작이나 서사방식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월성해자 출토 목간(이하 ‘월성해자목간’으로 약칭)과 안압지 출토 목간(이하 ‘안압지목간’으로 약칭)은 그 출토 유적의 시기적 선후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신라 문자문화의 계기적 변화와 발달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유물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⁸⁾ 월성해자목간은

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7) 함안목간은 통일된 일련번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최상기,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과 검토> 《목간과 문자》 11, 2013).

8) 윤선대,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이경섭, 앞의 책, 2013, 42~46쪽.

소위 연못형 해자(최근에는 이를 ‘수혈식 해자’로 표현하고 있음)에서 출토되었는데, 해자의 발굴을 통해 연못형 해자를 폐쇄하고 다시 석축 해자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⁹⁾ 또한 연못형 해자 및 석축해자의 폐쇄와 축조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반 유물 등을 통해 월성해자목간의 제작연대가 7세기 중반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못형 해자가 폐쇄되고 이후 석축 해자와 안압지가 건설되었다. 따라서 월성해자목간은 7세기 중반 이전, 안압지목간은 7세기 후반 이후를 각각 제작연대의 하한과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월성해자목간과 안압지목간 사이에 나타나는 목간의 형태, 제작방법, 서체, 운필법, 기록내용상의 차이점을 통해 신라 문자생활의 성숙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목간의 형태상에서 양자에는 큰 차이점이 확인된다. 안압지목간에 비해 월성해자목간에는 단면이 4각형인 觚 형식의 다면목간이나 별다른 가공 없이 나무의 껍질만 벗긴 채 사용한 圓柱形 목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목간 잔편을 포함하여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25점의 전체 목서목간 중 다각형, 원주형 목간이 11점이나 된다. 특히 원주형 목간 중에는 6행에 걸쳐 목서된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고대 삼국시기의 초기목간문화의 특징을 ‘다면목간문화’로 통칭한 바 있다.¹⁰⁾ 이는 일본의 고대 목간문화와 구분되는 한국 고대 목간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¹¹⁾

백제목간은 부여 官北里 유적에서 1983년에 최초로 발굴되었으나, 목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부여 宮南池 유적에서 ‘西部後巷’이 墨書된 1호목간이

9) 이상준, <경주 월성의 변천과정에 대한 소고> 《영남고고학》 21, 1997.

10) 윤선태, 앞의 논문, 2005.

11) 이경섭, 앞의 책, 2013, 23~24쪽.

발굴되면서 5부5항의 실재성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 목간 자료의 가치가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여의 여러 유적에서 연이어 백제목간이 출토되면서 목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羅州 伏岩里 유적 등 지방 관아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목간이 여러 점 발굴되어 이제는 백제의 都城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의 존재양태와 인민에 대한 지배방식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부여권의 개발과 함께 백제유적에 대한 발굴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비기의 목간은 앞으로 더욱 많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쌍북리 지역은 山澗水가 이곳으로 모여들어 低濕地가 형성되어 목간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8개 유적에서 목간이 발굴되었을 정도로 목간이 집중 출토된 지역이다. 이 일대는 백마강으로 이어지는 수운을이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부소산성을 둘러싸며 관청, 창고, 공방 등 관영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여의 구아리 일대도 저습지이며 백마강의 범람지대라는 점에서 목재유물의 보존환경을 고려할 때 목간의 대규모 발굴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제야말로 ‘자료부족’이라는 백제사 연구의 원초적 한계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백제목간은 신라목간에 비해 그 출토점수는 비록 적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불모지였던 백제의 戶籍, 量田, 度量衡, 地方行政體系, 문서행정, 都城 내외의 공간구조와 景觀, 術數學, 심지어 제사의례의 복원까지도, 목간자료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 백제목간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¹²⁾

12) 東野治之, <近年出土の飛鳥京と韓國の木簡> 《古事記年報》 45, 2003 ;

Ⅲ.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쟁점

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함안목간은 한국의 목간연구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이와 비교할 만한 같은 시기의 금석문 자료들도 매우 풍부해 신라 중고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함안목간은 대부분 세금의 꼬리표로 사용된 ‘荷札’들이어서, 당시의 수취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함안목간에 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는 함안목간의 작성연대에 관한 것이다. 신라가 함안의 아라가야로 진출한 시점과 목간에 기록된 外位 ‘干支’의 표기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간 역사학계에서는 목간 작성의 하한선을 일반적으로 561년으로 파악하였다.¹⁴⁾ 그런데 최근 부엽층 안에서 목간과 함께 공

平川南, <古代における道の祭祀－道祖神信仰の源流を求めて> 《やまなしの道祖神祭り》, 2005 ; 三上喜孝, <韓國出土木簡と日本古代木簡>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2007 ; 渡辺晃宏, <日本古代の都城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 13) 함안목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 논고가 이미 여러 편 발표되어 크게 참고 된다.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 이경섭,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 2004 ;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2008.

- 14) 목간의 작성연대에 관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전덕재, 앞의 논문, 2008, 4~5쪽을 참고바람.

주보돈,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 2000 ;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반 출토된 신라의 완을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이에 의거해 산성의 초축은 7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라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¹⁵⁾ 이어 부엽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6세기 중엽을 중심시기로 하나 연대 폭이 넓으며, 성벽의 초축은 6세기 중엽에, 내보축을 덧붙이고 부엽층을 조성한 동성벽의 개축 시기는 7세기 초에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발표되었다.¹⁶⁾ 이러한 고고학계의 다양한 반론을 통해 부엽층의 조성과 산성의 초축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목간과 공반된 토기의 편년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한 신라의 완은 6세기 중엽 이래 7세기 전반까지 형식 변화가 거의 없는 기종으로 ‘형식분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를 제외하면 부엽층 속에서 목간과 함께 출토된 토기들은 6세기 중엽이 그 중심연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下)干支’ 표기는 현재까지 하나의 예외 없이 561년 이전에 사용되었다. 또한 함안목간 중에는 ‘及伐尺’이라는《삼국사기》外位條에 전하지 않는, 신라의 초기 외위제에서 최하위의 등급이었던 외위가 확인된다. 591년에 작성된<남산신성비>는 지방인과 그들에게 수여된 외위가 매우 많이 기록된 자료인데, 여기에는 及伐尺이 보이지 않으며, <봉평비>(524년)에서만 동일한 외위인 ‘居伐尺’이 확인된다. 초기 외위체계에서 하나의 등급이었던 거벌척(급벌척)은 591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제도적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下)干支’ 표기로 볼 때 함안목간 중에는 561년 이전에 작성된 목간이 분명히 존재하며, 목간의 작성연대에 진폭이 있다고 해도 동반된 토기의 중

《동원학술논문집》 5, 2002.

15) 이주현, <함안 성산산성 부엽층과 출토유물의 검토> 《중앙고고연구》 16 : 《목간과 문자》 14, 2015, 51~65쪽.

16) 윤상덕, <함안 성산산성 축조연대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4, 2015, 75~92쪽.

심 편년이나 ‘及伐尺’의 존재로 볼 때 대체로 6세기 중반의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¹⁷⁾

둘째는 함안목간의 용도에 대한 것이다. 함안목간은 애초 名籍으로 보고되었으나,¹⁸⁾ 함안목간에 지명, 인명, 곡물, 수량의 서식으로 목서가 기록되어 있고 하단부에 구멍이나 V자형의 결입부를 파놓은 부찰 형태를 하고 있어, 함안목간에는 명적도 있지만 세금의 꼬리표인 하찰도 포함되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¹⁹⁾ 이후 고대일본의 하찰 사례들에 기초하여 형태적으로 부찰의 모습이 아닌 함안목간들도 하찰의 용도로 제작되었다는 보다 진전된 견해가 피력되었다.²⁰⁾ 현재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문서목간도 확인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함안목간을 하찰로 이해하고 있다.²¹⁾

한편 하찰의 地名이 낙동강 수계 지역이라는 점에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 각지의 세금을 함안에 집결시키는 방식으로 신라의 가야지

17) 필자는 애초 하찰에 나타난 호적 작성을 전제로 한 신라의 치밀한 지방 지배 방식에 기초하여 함안목간의 작성연대를 진평왕 6년(584) 調府 설치 이후로 파악하였다(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88, 1999, 21~22쪽). 이는 판단착오가 분명하다. 함안목간을 통해 진흥왕대 신라 국가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8) 김창호,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대하여> 《함안 성산산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19) 필자는 신라의 외위 소지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지레 짐작하고, 함안목간에는 하찰로 볼 수 없는 名籍도 존재한다고 잘못 추론하였지만, 최초의 보고와 달리 함안목간에 하찰이 존재한다는 점을 처음 지적한 것은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평하고 싶다(윤선태, 앞의 논문, 1999, 14~20쪽).

20) 平川南,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19, 2000.

21)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성격론 - 2차 보고분을 중심으로 -> 《고고학지》14, 2005;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37, 2005.

역 경영이 이루어졌고,²²⁾ 세금을 납부한 지역들이 ‘上州’라는 광역단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신라의 지방지배와 세금 수취방식 등이 지적되었다.²³⁾ 또 하찰을 통해 중고기에는 행정촌만이 아니라 자연촌도 이미 ‘村’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²⁴⁾

끝으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찰의 제작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仇利伐, 古隋 등 서식이나 형태상 ‘地域色’이 완전한 목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²⁵⁾ 대체로 함안목간이 행정촌 단위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²⁶⁾ 하찰 목서 중 ‘城下’가 표기된 목간을 비롯해 복수의 지명이 기록된 목간에 대해서는 제작지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하찰의 목서에 보이는 ‘奴人(奴)’의 성격을 비롯해, 石과 負의 의미, 本波, 阿那, 末那 등의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⁷⁾

22) 윤선태, 앞의 논문, 1999, 20쪽.

23)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동원학술논문집》 5, 2002.

물론 구리벌을 下州 소속으로 보기도 하지만(이경섭, 앞의 논문, 2005), 대체로 上州 소속으로 보고 있다.

24) 하찰에 보이는 村의 성격에 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전덕재, 앞의 논문, 2008, 15~17쪽을 참조바람.

25) 물론 下州 소속의 仇利伐 목간을 제외한 함안목간 일체가 행정촌 상위의 광역행정단위인 上州의 치소인 甘文城에서 제작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지만(이경섭, 앞의 논문, 2005), 행정촌 단위별로 하찰의 지역색이 선명하다는 점에서 州의 치소에서 제작했다는 견해는 성립하기 어렵다.

26)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2007;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郡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3, 2009.

27) ‘奴人(奴)’의 성격, 石과 負의 의미, 本波, 阿那, 末那 등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기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덕재, 앞의 논문, 2008, 21~31쪽에

우선 함안 219호 목간은 14차에 발굴된 목간으로 함안목간의 하찰에 묵서된 負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적 내용을 담고 있다. 판독은 “方□日七[冠]村/ 此負刀寧負盜人有”로 읽을 수 있다. 이에 의거하면 부는 ‘짐’, 즉 ‘세금꾸러미’를 가리킨다.²⁸⁾ 기존의 연구에서도 ‘負’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챙기거나 꾸러 놓은 물건(荷物)’, 즉 ‘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었는데,²⁹⁾ 219호 목간을 통해 정확한 해석임이 증명되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함안목간이 세금의 하찰이라는 지적에 그치고 있다. 이들 하찰에 복수 인명, 奴人(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 납부한 곡식의 종류에 차이가 나는 점 등에 주목하여 당시 신라의 수취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奴人(奴)에 대해서는 <봉평비>의 ‘奴村’에 의거하여 奴人을 집단예민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奴人’ 하찰의 일반적인 서식이 지명+인명+노(또는 노인)+인명(+부)의 형식을 하고 있어, 앞의 사람에게 예속된 私奴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³⁰⁾

그런데 北魏 이래 北朝의 국가에서는 노비도 세금을 납부했다.³¹⁾ 신라 역시 후대 695년의 자료지만 <촌락문서>로 볼 때, 당시 노비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이후 나온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권인한, <함안 성산산성 목간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史林》31, 2008; 권인한, <고대 지명 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2008; 이수훈, <城山山城 木簡의 本波와 阿那> 《역사와 세계》38, 2010;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28)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2012.

29) 이수훈,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2004, 21~31쪽.

30) 이에 대한 연구사는 전덕재, 앞의 논문, 2008, 21~31쪽을 참조바람.

31) 물론 노비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납부를 책임졌을 것이다.

세금을 납부했음을 알 수 있다. 촌락문서에서 각 촌의 奴婢 수는 일반인과 구별 없이 각 연령등급별 속에 함께 합산되어 있다. 西魏, 古代日本, 唐의 노비기재양식으로 볼 때도, 村落文書의 노비는 양인과 마찬가지로 수취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²⁾ 이처럼 695년 촌락문서 단계에서 노비에게 수취를 하고 있었다면, 노인(노)의 하찰은 촌락문서의 수취방식을 이해하는 연원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신라에서 하찰마다 세금으로 납부했던 세액에 각각 쌀, 보리, 피 일석의 차이가 있고, 1인의 하찰과 세액이 동일한 복수 인명의 하찰이 존재하는 것, 또 1인인데도 負나 發 등 세금꾸러미에 차이가 나는 것 등은 신라에서 연령등급별, 호등별 差等收租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함안목간의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 촌락문서의 공연, 계연 및 연령등급과 연결하여 당시의 수취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해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은 문제로는 그간 하찰목간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함안목간 중 하찰이 아닌 문서목간 등 기타 목간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함안 218호 목간은 부찰 형태를 하고 있지만 문서 내용상 하찰이 아니라 술향아리(瓮)에 매달아놓은 부찰이었다. 문서를 해석하면, “正月에(中) 比思伐의 古尸沙 阿尺과 夷[喙]의 羅兮智 及伐尺이 함께(并) 만든(作) 前□酒 四[斗]의 [瓮]”이 된다. 비사벌(현재의 창녕)은 함안목간에서 처음 나오는 지명인데, 이 두 사람은 성산산성의 축성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로 추정되며, 이 부찰은 그들이 축성의 여가에 술을 담고 발효기간을 고려하고 소유자를 알리기 위해 정월 및 인명과 외위를 표시해 술향아리에 꼬리표로 묶은 것이

32) 윤선대,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 - 신라 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부찰은 及伐尺이라는 외위가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의 일상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 필자의 판독이 틀리지 않았다면 上州가 아니라 下州의 영역에 속한 비사벌(현 창녕) 등의 지명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종래 수취지역을 上州에 한정하여 본 견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³³⁾ 한편 함안 221호, 223호 목간은 문서목간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전의 적외선 사진만으로는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후일 적외선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독을 시도하고 후에 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2. 월성해자 및 기타 신라목간

월성해자에서는 6~7세기에 제작된 신라의 醫藥, 王京六部, 文書行政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매우 중요한 목간들이 출토되었다.³⁴⁾ 우선 월성해자 149번 사면목간은 신라 문서행정과 이두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목간은 고대일본의 ‘某前申(某 앞에 올림)’ 형식의 문서 투식이 중국 六朝時代의 書狀 내지는 문서형식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입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 목간의 내용 속에 대조지랑(또는 대오지랑)의 명을 받고 이를 처리한 후 보고하는 과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문서행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편 기존에는 신라 이두의 때가 8세기에 들어가서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 목간을 통해 이

33) 혹 上州는 식량, 下州는 노동력을 나눠 부담하였던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34)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미 7세기 중반에 선어말어미의 표기체계가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어학계에서 신라이두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³⁵⁾ 다음으로 월성해자 167번 목간은 道教 계열의 醫藥處方을 기록한 목간으로 추정된다. 이 목간으로 볼 때, 신라에서는 6~7세기 단계에 이미 中國醫書를 학습하고 있었고, 그 약재효용과 조제량을 숙지한 의약처방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흥왕순수비>에서 확인되는 ‘藥師’가 바로 그 始原으로 이해된다.

151번 목간은 왕경 6부의 내부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필자는 이 목간의 용도를 신라의 각 部, 세부적으로는 각 리(里)를 단위로 하여 국가와 部·리 사이에 존재하였던 受取關係를 기록한 목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각 部 단위로 단락기호를 사용해 구분하였고, 部 소속 하의 각 리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受’나 ‘不’의 夾註가 각 리의 말미에 부기되어 있다. 이는 ‘받았거나(受)’ 또는 ‘받지 않았음(不)’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았다.³⁶⁾

이후 월성해자목간에 대한 정식의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를 보면 그 사이 월성해자목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적외선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 사진자료들에 의거하여 종래의 판독안을 한층 발전시킨 견해가 제시되었다.³⁷⁾ 특히 이 목간의 각 리명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어휘들을 종래에는 혹 수취와 관련된 ‘物名’이 아닐까 추론하였는데,³⁸⁾ 이 어휘들 역시 리명처럼 ‘地名’이라는 사실이 보고서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 보고서에서는 部名 아래에 지명이 나열되어 있는

35) 김영옥,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

36) 윤선태, 앞의 논문, 2005, 129~133쪽.

37) 이용현, <목간류>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I - 고찰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130~371쪽.

38) 윤선태, 앞의 논문, 2005, 131쪽.

데, ‘뿔이 붙은 것’과 ‘뿔이 붙지 않은 것’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목간의 기록들은 신라 6부의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당대의 1차 사료라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안압지목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洗宅’이라는 목서에 주목하여 신라왕실의 근시기구를 검토한 연구,³⁹⁾ 안압지 출토 문자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연구 등이 제출되었다.⁴⁰⁾ 또 일본고대의 목간연구를 기초로 하여, 안압지목간에서 하찰 내지 창고 관리용 꼬리표목간을 추출하고,⁴¹⁾ ‘辛審’이 신라왕실로의 貢進物 중 하나라는 점이 지적되었다.⁴²⁾ 또 고대일본의 문호목간과 서식을 비교하여 안압지목간에서 신라의 문호목간을 발견한 중요한 연구 성과가 있다.⁴³⁾ 필자도 두 목간에 기록된 ‘슴點(check mark)’과 ‘在’의 追記를 상호 비교하여 궁궐 경호시스템을 복원한 바 있다.⁴⁴⁾ 최근 ‘醃’과 같은 식해나 음식물 등이 기록된 안압지 꼬리표목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고대일본의 꼬리표목간도 대다수가 수산물, 수산가공물에 부찰된 목간들인데, 안압지목간을 통해 신라왕실에서도 이러한 수산가공물을 쫄과缶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압지 꼬리표목간에는 삭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날짜를 기록해두었다.⁴⁵⁾

39) 이기동, 앞의 논문, 1979.

40) 고경희, <신라 月池 출토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研究>,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41) 윤선태, 앞의 논문, 1997.

42) 윤선태, 앞의 학위논문, 2000.

43)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1997.

44) 윤선태,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45) 橋本繁, <慶州雁鴨池木簡と新羅內廷>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2007.

경주 황남동 376번지유적은 신라 공방지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공방의 食米 등을 저장해둔 창고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목간의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목간에 下椶, 仲椶 등 창고 별로 보관해둔 食米의 양을 일일이 정리해놓았다. 이 목간을 통해 신라에서는 이두에서 처격조사로 사용된 ‘中’과 구분하기 위해 상중하의 경우 ‘仲’字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⁶⁾ 또 이 목간은 신라의 장부작성과정이나, 창고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켜주었다.⁴⁷⁾ 한편 경주박물관 부지나 전 인용사지의 우물, 그리고 창녕의 화왕산성의 연지 내에서 주술용목간이 출토되었다. 당시 중앙이나 지방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주술목간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⁴⁸⁾

끝으로 김해 봉황동유적과 인천 계양산성유적에서 출토된 신라의 《論語》다면목간은 그 원형을 복원해보면 1m 이상으로 길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신라에서《논어》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주며, 또한 시각적으로 특화시킨 목간의 용도를 상정해볼 수 있다.⁴⁹⁾ 신라에서는 이미 6세기<진흥왕순수비>에 帝王의 기본자세로서《논어》의 구절이 언급되었고, 7세기에도 金庾信, 丕寧子, 郝熱 撰干 등 중앙이나 지방 할 거 없이 지배층들이《논어》의 구절을 암송하고, 자신들의 座右銘이나 作名에 이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통일 이후 國學에서도《논어》는《효경》과

46) 이용현, <경주황남동376유적출토 목간의 형식과 복원> 《신라문화》 19, 2001.

47) 김창석, <황남동376유적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신라문화》 19, 2001.

48) 주술목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이재환, 앞의 논문, 2013을 참조 바람.

49)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153, 2004; <古代朝鮮における《論語》受容再論>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2007.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텍스트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다.

IV. 백제목간의 연구 성과와 쟁점

1. 사비도성의 공간구조와 편제

목간은 목서를 통해 그 작성자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목간출토 지점과 그 주변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복원할 수 있다. 부여의 여러 유적에서 목간이 발굴되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백제 사비도성의 공간구조와 그 편제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능산리 1호목간으로 볼 때, 사비도성의 경계에는 독특한 景觀과 儀禮가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성의 입구에는 왕권을 수호하는 거대한 羅城과 국가사찰과 왕실의 능원이 건립되었고, 또 疫病 등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不淨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道神인 ‘男根’을 일으켜 세웠다. 결국 능사 목간출토지점은 일상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항상적으로 의례가 열렸던 상징적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도성의 경계에 연출된 ‘羅城’과 ‘國家寺刹’과 ‘道祭’를 통해, 사비도성은 지방과 隔絶된 神聖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⁵⁰⁾

한편 中方에 兵器를 分與한 ‘兵与記’ 장부의 標識인 관북리 1호목간이나 출입시의 신분보증용 符信으로 사용된 2호목간 등을 통해 관북리 목간이 출토된 蓮池 일대가 백제 왕궁터 혹은 중요한 관청 터였

50) 윤선태, 앞의 책, 2007.

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사비기 백제의 22부 관서 중 ‘外椋¹⁾’가 묵서된 목간이 쌍북리 280-5번지에서 출토되었다.⁵¹⁾ 이 일대는 백마강으로 이어지는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관북리 일대와 함께 부소산성을 둘러싸며 관청, 창고, 공방 등이 관영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이 일대에서 현재 백제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外椋部の 창고 입지도 백마강의 수운을 통한 유통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북리 2호목간과 궁남지 1호목간 등으로 볼 때, 사비도성의 바깥에는 동서에 각각 ‘囑夷’城와 ‘神丘’城을 배치하였고, 도성 내부 西部後巷에는 백제에 귀화한 ‘歸人’들을 거주시키고 ‘部夷’라고 불렀다. 사비도성의 내외를 粉飾한 이러한 작명 속에는 백제 대왕을 天下의 中心으로 연출하려했던 의도가 엿보인다.⁵²⁾ 미륵사지 서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637년)에 武王을 ‘陛下’라고 호칭한 것도 이러한 백제 중심의 華夷觀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 호적의 기재양식과 ‘歸’

백제목간은 문서목간들이 많이 발굴되었고, 특히 丁을 기록한 목간들이 많다. 대개는 인력 관리나 동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궁남지 1호목간은 백제의 호적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여겨진다.⁵³⁾ 이에

51) 朴泰祐,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泚都城의 空間構造 - “外椋部”銘 木簡을 中心으로> 《百濟學報》창간호, 2009.

52) 윤선태, 앞의 책, 2007, 205~218쪽.

53) 이 목간을 공훈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문서목간(박현숙, <宮南池 出土 百濟 木簡과 王都 5部制> 《韓國史研究》 92, 1996)이나 통행문서와 같은 過所木簡(李鎔賢,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9:《韓國木簡基礎研究》,

한 戶의 가족구성과 전답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목간에는 丁 2인, 中口 4인, 小口 2인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백제에서 丁, 中, 小의 연령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정-중-소’의 제도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610년에 작성된 나주 복암리 목간이 발굴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이 중 복암리 2호목간과 6호목간을 통해 백제 戶籍의 서식을 복원해본 연구도 제기되었다. 그에 의하면 백제의 戶는 복합세대로 구성되었고, 세대별로 독립 기술되었다. 그 각각에 中口, 小口 등 그 예하 子女가 남녀 구별 없이 나이순으로 기술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西魏의 大統 13년(A.D.547) 戶籍이나 고대일본의 西海道戶籍(A.D.702)과 서식이 매우 유사하다. 결국 西魏 계열의 서해도호적 기재양식은 7세기말 망명한 백제계 지식인들에 의해 고대일본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⁵⁴⁾

한편 복암리목간이 발굴되면서 궁남지 1호목간 <2면> 2행의 ‘歸人’은 현재 백제호적의 기재양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歸’자의 경우 좌변 일부가 파손되어 완전한 글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세로로 내려간 일부 획이 보여 우변과 연결하여 첫 보 고부터 ‘歸’로 파악하여 왔고 최근까지 다른 판독안은 제시된 바가 없다. 또 그 의미는 歸化人으로 봐왔다.⁵⁵⁾ 그런데 역시 호적에서 발췌

신서원, 2006), 水田을 개간한 사실을 기록한 목간(양기석, 《백제의 경제 생활》, 주류성, 2005), 백제인 遊食者와 전쟁포로 등 외부에서 유입된 귀화인을 하나의 戶로 편제한 후 토지를 지급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 徙民給田籍(이경섭, <宮南池 출토 木簡과 百濟社會> 《韓國古代史研究》 57, 2010) 등으로 파악하는 견해들도 있다.

54) 윤선태,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목간의 판독과 용도 분석> 《백제연구》 56, 2012, 56~64쪽.

55) 이용현, 앞의 논문, 1999.

한 목간으로 추정되는 북암리 2호목간에는 기재양식상 궁남지 목간의 歸人과 유사한 위치에 ‘婦’로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확인되어, 궁남지 목간도 ‘婦人’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⁵⁶⁾ 그러나 궁남지 1호목간의 경우 뒤에 ‘人’이 붙어있는 차이가 있고, 또 <1면>에 나오는 ‘尸夷’를 옆두에 두고 여전히 ‘歸人’으로 읽는 견해가 많다. 더욱이 북암리 2호목간의 ‘婦’를 오히려 ‘歸’로 읽고, 이 ‘歸’ 또는 궁남지 목간의 ‘歸人’이 기존의 해석처럼 귀화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戶主에 소속된 ‘家屬’을 지칭하는, ‘率’에 해당되는 백제호적의 書式이라는 새로운 견해도 제기되었다.⁵⁷⁾

또 궁남지 1호목간에서는 ‘邁羅城 法利源 水田五形’이라는 문구가 <1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이 토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사품으로 보거나, 앞의 인물들이 노역에 동원된 지역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 호의 호적 내에 기록되었던 토지 관련 기록을 발췌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초기 호적들은 호가 소유한 牛나 토지 등의 자산을 모두 등재했으므로 이를 해당 호의 소유 혹은 경작 토지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북암리 6호목간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목간의 경우 앞면에 한 戶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궁남지 1호목간과 유사하게 적혀 있으며 더하여 소 1마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후면에는 ‘形’을 단위로 하는 토지 정보와 그 수확량이 적시되어 있다. 수확량을 제외하면 두 목간은 거의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셈이다.

56) 平川南, <日本古代の地方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2010, 184~185쪽.

57) 홍승우, <목간 자료로 본 백제의 籍帳 문서와 수취제도> 《한국고대사연구》80, 2015, 138~139쪽.

3. 도량형과 ‘佐官貸食記’목간

능산리 25호 목간 중 1~2면의 <支藥兒食米記>를 보면 小升과 大升의 용례가 확인된다. 이 단위에 대해서는 秦漢의 大半(升), 少半(升)으로 본 견해가 처음 제기되었다.⁵⁸⁾ 그러나 升 밑의 단위로 사용된 진한대의 少半(升)·大半(升)과는 다르게 백제는 升 단위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식미 지급의 편의를 위해 1인의 식미량인 2升과 2인의 식미량인 4升의 量器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나왔다.⁵⁹⁾ 이후 三升을 一大升으로 하는 중국의 대승제가 수용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⁶⁰⁾ 그러나 대승제로 볼 경우 문제가 있다. 중국의 경우와 달리 대소의 도량형제가 백제에서는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즉 대소승제가 斗와 혼용되어 있어 이 斗의 용량이 문제가 된다. 또 능사 목간은 6세기 중 후반에 작성된 것인데, 이때 중국에서는 대소의 도량형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지약아’, 즉 人數의 배수와 목간에 나오는 小·大升, 그리고 斗의 배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소승은 2, 대승은 4라는 배수라야 설명이 가능하다.

쌍북리 208-5번지 1호목간인 ‘좌관대식기’목간에도 백제 量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좌관대식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半과 甲이라는 용어이다. 半은 중국 등의 사례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 어떤 단위의 1/2을 의미한다. 甲은 그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좌관대식기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반의 반, 곧 1/4을 나타내는 단위임을 알 수 있다.⁶¹⁾ 그런데 半과 甲을 앞에 적힌 단위의 일정한 비율로 보지 않고

58) 近藤浩一,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39, 2004.

59) 윤선태, 앞의 책, 2007, 138쪽.

60) 홍승우,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7~110쪽.

斗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 즉 升 단위에 한정하여 쓰이는 것으로 각각 5升(1/2斗)과 2.5升(1/4斗)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半과 甲은 升 단위에 한정하여 쓰이는 표현이고, 그로 인해 이 목간에는 升만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런 단위가 사용된 이유로는 당시 貸食의 이자율이 50%여서 반(50%)과 갑(25%)의 단위 외에 승 단위가 사용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⁶²⁾

한편 좌관대식기에는 총합을 보여주는 부분에 ‘并十九石×’, ‘得十一石×’이 적혀 있다. 貸食한 총량은 ‘20石 7斗’가 되어야 하는데, ‘19石 얼마’라고 적혀 있어 백제의 양제가 1석=10두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에 의거해 1석=18두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⁶³⁾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자율 50%가 맞지 않게 된다. 좌관대식기에서 빌린 사람들의 상환량과 미상환량을 분석해 보면 1석=10두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⁶⁴⁾ 문제는 총합 부분이 왜 이렇게 적혀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石과 斗 단위가 별도로 합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⁶⁵⁾ 이것이 현재 미상환량의 총계를 기록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⁶⁶⁾

61) 李鎔賢, <佐官貸食記와 百濟貸食制> 《백제목간》, 국립부여박물관, 2008 ; 三上喜孝, <古代東アジア出舉制度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009.

62) 홍승우, 앞의 논문, 2013, 37쪽.

63) 平川南, 앞의 논문, 2010.

64) 홍승우, 앞의 논문, 2011, 116~117쪽.

65) 三上喜孝, 앞의 논문, 2009.

66) 尹善泰, <新出木簡からみた百濟の文書行政> 《朝鮮學報》 215, 2010.

4. 지방행정제도와 ‘方’

백제의 지방제도 관련 목간 및 금석문 자료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문헌자료에 의거해 이루어졌던 백제 지방제도 연구를 새롭게 재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⁶⁷⁾ 특히 궁남지 1호목간의 ‘邁羅城’, 관북리 2호목간의 ‘岫夷’, 그리고 복암리목간의 ‘得安城’(1호) 외에 ‘半那’(3호), ‘軍那’(12호) 등 백제 당시의 지명을 기록한 목간자료가 증가하면서, 종래 백제 멸망 후 당의 도독부 시절에 처음 사용했던 지명으로 인식되었던《삼국사기》지리4의 동일 지명들이 실제로는 백제가 멸망 이전부터 이미 사용하였던 지명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⁶⁸⁾

이는 기존에 이들 지명의 작명 주체를 당으로 보고, 당이 도독부 시절에 백제의 지방제도를 파괴했고, 신라가 당을 몰아내며 다시 백제의 제도를 복원했다고⁶⁹⁾ 이해하였던 견해의 논거가 매우 취약한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 신라 통일기의 군-현체계에 의거해 백제의 군-성체계를 이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삼국사기》지리지에 전하는 신라 통일기 군-현의 영속 관계를 해체하고 백제 때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복암리 4호목간의 ‘郡佐’, 그리고 ‘軍那’가 기록된 부찰과 ‘半那’인의 역역편성 관련 목간 등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목간에 의거하면 목간이 출토된 복암리 지역, 즉 豆盼城이 7세기 초 당시 군나, 반나 등을 예하에 거느린 郡의 治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는 6세기 이후 영산강 유역으로 세력을 뻗치면서, 반나의

67) 김영심,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68) 윤선태, 앞의 책, 2007, 210쪽.

69) 盧重國,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140~141쪽.

기존 지역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현재 다시면 북암리 일대인 ‘豆盼’ 지역의 세력을 후원하였다. 북암리고분군과 목간이 출토된 북암리 유적은 이를 상징한다. 이러한 郡-城의 관계는 唐이 帶方州를 설치하였던 도독부 시절에도 지속되어 그대로 주-현체제로 이어졌다.

한편 능사 25호목간에 ‘道使’와 함께 목서된 ‘彈耶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方 외에도 별도의 方이라는 이름의 지방행정구역이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⁷⁰⁾ 이 자료는《日本書紀》에 전하는 城方, 牛頭方, 尼彌方 자료를 토대로 檐魯와 方이 5방 하의 方 郡城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병존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주목케 하였다.⁷¹⁾ 彈耶方 역시 일차적으로 그것이 方制 하의 지역단위라는 점에서 5방과 유사한 지역단위로 城보다 상위의 행정단위였다고 생각된다.⁷²⁾

V. 맺음말

한국의 고대목간은 전체 출토점수가 647점에 달해, 현재 그 자료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신라목간은 백제목간에 비해 출토점수도 많고, 목간출토 유적이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라목간문화의 변천과정이나, 목간제작이나 서사방식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월성해자 출토 목간과 안압지 출토 목간은 그 출토 유적의 시기적 선후가 명확

70) 윤선태, 앞의 책, 2007, 140~141쪽.

71) 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72) 윤선태, 앞의 논문, 2012, 65~70쪽.

히 구분되기 때문에 신라 문자문화의 계기적 변화와 발달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유물이다.

백제목간은 부여 官北里 유적에서 1983년에 최초로 발굴되었고, 1995년 부여 宮南池 유적에서 ‘西部後巷’이 墨書된 1호목간이 발굴되면서 5부5항의 실재성이 증명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 목간 자료의 가치가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여의 여러 유적에서 연이어 백제목간이 출토되면서 목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羅州 伏岩里 유적 등 지방관아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목간이 여러 점 발굴되어 이제는 백제의 都城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의 존재양태와 인민에 대한 지배방식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백제목간은 신라목간에 비해 그 출토점수는 비록 적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불모지였던 백제의 戶籍, 量田, 度量衡, 地方行政體系, 문서행정, 都城 내외의 공간구조와 景觀, 術數學, 심지어 제사의례의 복원까지도, 목간자료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90년대 이후 목간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목간의 정의를 비롯해 목간의 세부 명칭이나 용도, 형식 분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목간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것도 목간자료의 역사적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목간에 대한 기초적 개념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목간의 목서에 대한 공식적인 판독안을 확립해야 한다. 목간의 최초 발굴 때 사진촬영과 적외선촬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목서 판독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쌍북리에서 출토된 백제 ‘구구단’ 목간은 이러한 학제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 보고서에 그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발굴측에서 한국목간학회에 발표하면서 비로소 구구단 목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목간사전》, 2011.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2007.
-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 이용현,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2006.
- 朝鮮文化研究所編,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
- 권인한, <고대 지명 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2008.
- 권인한, <함안 성산산성 목간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史林》31, 2008.
- 近藤浩一,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39, 2004.
- 김영심,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 김영욱,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창간호, 2008.
- 김재홍, <부여 궁남지유적 출토 목간과 그 의의> 《궁남지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 김창석, <羅州 伏岩里 출토 木簡 연구의 쟁점과 과제> 《百濟文化》 45, 2011.
- 김창석, <황남동376유적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신라문화》 19, 2001.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 김창호,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대하여> 《함안 성산산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 朴泰祐,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泚都城의 空間構造－“外椽部”銘 木簡을 中心으로> 《百濟學報》 창간호, 2009.
- 박현숙, <宮南池 出土 百濟 木簡과 王都 5部制> 《韓國史研究》 92, 1996.
- 심상욱·김영문, <부여 구아리 319 유적 출토 편지목간의 이해> 《목간과 문자》

- 15, 2015.
- 윤상덕, <함안 성산산성 축조연대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4, 2015.
- 윤선태,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목간의 판독과 용도 분석> 《백제연구》 56, 2012.
- 윤선태,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2012.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88, 1999.
- 윤선태,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 지배 - 신라 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경섭, <宮南池 출토 木簡과 百濟社會> 《韓國古代史研究》 57, 2010.
-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37, 2005.
- 이경섭,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 2004.
- 이경섭, 《신라 중고기 목간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李基東, <雁鴨池에서 出土된 新羅木簡에 대하여> 《慶北史學》 1, 1979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 이상준, <경주 월성의 변천과정에 대한 소고> 《영남고고학》 21, 1997.
- 李成市, <韓國木簡研究의 現況과 咸安 城山山城出土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 이수훈, <城山山城 木簡의 本波와 阿那> 《역사와 세계》 38, 2010.
- 이수훈,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2004.
- 이용현, <경주황남동376유적출토 목간의 형식과 복원> 《신라문화》 19, 2001.
- 이용현, <나주 복암리 목간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이용현, <목간류>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 - 고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 李鎔賢,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發掘調查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9.
- 李鎔賢, <佐官貸食記와 百濟貸食制> 《백제목간》, 국립부여박물관, 2008.
-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

- 구소, 2004.
-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6세기 신라의 지방경영> 《동원학술논문집》 5, 2002.
-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성격론 - 2차 보고분을 중심으로-> 《고고학지》 14, 2005.
- 이재환, <한국 고대 '주술목간'의 연구 동향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이주현, <함안 성산산성 부엽층과 출토유물의 검토> 《중앙고고연구》 16 ; 《목간과 문자》 14, 2015.
- 임경희·최연식,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목간과 문자》 5, 2010.
-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제와 郡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 전덕재,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2011.
-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제> 《역사와 현실》 65, 2007.
-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31, 2008.
-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2009.
- 주보돈, <한국의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창간호, 한국목간학회, 2008.
- 주보돈,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 2000.
- 최상기,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과 검토> 《목간과 문자》 11, 2013.
- 平川南, <日本古代の地方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2010.
- 平川南,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 19, 2000.
- 홍승우, <목간 자료로 본 백제의 籍帳 문서와 수취제도>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 홍승우, <부여 지역 출토 백제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 渡辺晃宏, <日本古代の都城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 東野治之, <近年出土の飛鳥京と韓國の木簡> 《古事記年報》 45, 2003.
- 馬場基, <木簡の作法と100年の理由> 《日韓文化財論集》Ⅱ, 奈良文化財研究所·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 三上喜孝, <古代東アジア出擧制度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009.
- 三上喜孝, <韓國出土木簡と日本古代木簡>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2007.
- 尹善泰, <新出木簡からみた百濟の文書行政> 《朝鮮學報》 215, 2010.
- 李基東, <韓國古代木簡の發見による新羅·百濟史研究の新たな進展>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1997.
- 李鎔賢, <韓國における木簡研究の現状>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2007.
- 平川南, <古代における道の祭祀 - 道祖神信仰の源流を求めて> 《やまなしの道祖神祭り》, 2005.

ABSTRACT

Research and Perspective on the Wooden Documents of Ancient Korea

Yoon, Seon-tae

The total number of ancient Korean wooden documents excavated to date is 647 pieces, and the data base is increasing. Most of the items found so far are from the Silla dynasty. There were excavations in the ruins of Silla, such as Anapji pond(雁鴨池), Wolseong moat(月城壕字), and 376 Hwangnam-dong(皇南洞), Gyeongju(慶州). In addition, wooden documents were unearthed in the ruins of the local government sites such as Yisung mountain castle(二城山城) in Hanam(河南) and Sungsan mountain castle(城山山城) in Haman(咸安). The number of excavated wooden documents from Silla is more than Baekje, and the remains are scattered evenly by period and region.

Therefore, studies on the cultural change of the Silla wooden document,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roduction of wooden documents, and the method of writing are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wooden documents of Wolseong moat and Anapji pond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temporal precedence relationship of the excavated ruins, which means that it can be used as an indicative relic to show transition process and development of characters of Silla.

Baekje's wooden document was first unearthed in 1983 at Kwanbuk-ri(官北里) in Buyeo(扶餘). In 1995, a wooden document with the word 'West zone, Back street(西部後巷)' was unearthed from the ruins of Kungnam-pond(宮南池) in Buyeo and proved the existence of 'Five zones, Five streets(5部 5巷)'. Since then, Baekje's wooden documents were excavated continuously in various places of Buyeo, and the interest among the researchers has increased greatly. In recent years, various documents have been unearthed in Bokam-ri(伏岩里), Naju(羅州) where a local government was located. It is now possible to study not only the capital city of Baekje but also the mode of existence of the local society and the way of domination of the people.

The wooden document of Baekje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in terms of quality though it has fewer excavations than Silla. Until now, the research on Baekje's family register, land survey, metrology,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document administration has rarely been conducted. However, if we utilize the wooden document as a material to study history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will help researchers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Baekje: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structure and the surroundings of the capital, and mathematics. Finally, to restore some ritual ceremonies would be possible based on this research.

Key words : wooden document, Silla, Baekje, document administration, wooden tag label

논문 투고일 : 2016. 11. 13. 심사 완료일 : 2016. 12. 2. 게재 확정일 : 2016. 12. 2.